

# 2009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③	2	⑤	3	③	4	⑤	5	①
6	④	7	③	8	⑤	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①	18	①	19	②	20	②
21	①	22	⑤	23	③	24	②	25	⑤
26	⑤	27	②	28	①	29	②	30	③
31	②	32	③	33	④	34	①	35	③
36	④	37	⑤	38	④	39	④	40	④
41	①	42	⑤	43	⑤	44	④	45	③
46	①	47	③	48	③	49	②	50	⑤

### 해설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주거나, 적성 검사와 IQ 검사도 해주는 어떤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상담가가 한 수감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담가를 보자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상담가가 의아해 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5년 전에 상담가가 자신에게 IQ 검사를 해 주면서 IQ가 높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가의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수감자는 교도소의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담가가 수감자의 IQ가 높다고 말한 것은 그 수감자의 IQ가 다른 수감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상담가는 수감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그들의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어 말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담가의 말 한 마디가 그 수감자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에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상담가가 건넨 말 한 마디에 자신감을 얻어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수감자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상담가의 긍정적인 말 한 마디 덕분이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

[2] 이번에는 라디오 강좌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지킴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건강원의 이수지 선생님을 모시고 쉽게 할 수 있는 건강 체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지**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음, 오늘 소개하실 내용은 무엇이죠?  
**이수지** : 네, 오늘은 박수 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아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소개해 주시죠.  
**이수지** : 먼저 주먹박수가 있습니다. 주먹박수는 주먹을 쥔 양손의 손가락과 손바닥 아랫부분을 나란히 닿게 하여 치는 박수입니다. 처음엔 손가락 뼈마디가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익

숙해지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주먹박수는 두통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목박수가 있습니다. 손목박수는 주먹을 쥔 채로 손목 부분을 마주치는 박수입니다. 손목박수를 치면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손바닥 아래쪽 부분을 자극하여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회자** :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박수네요. 그럼, 또 어떤 박수가 있죠?

**이수지** : 네, 다음으로 손등박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손등박수는 손바닥으로 다른 한쪽의 손등을 때리듯이 치는 박수로 양손을 번갈아 가며 치는 것입니다. 이 박수는 척추와 연결된 손등을 자극하여 허리와 등, 특히 요통이 심한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박수가 있습니다. 이 박수는 열 손가락의 끝 부분만 서로 부딪치게 하는데요, 손끝박수는 특히 눈이 피로한 사람, 만성비염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사회자** :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건강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지킴이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 [출제의도] 강좌를 듣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강좌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① 손끝박수, ② 손목박수, ③ 주먹박수, ④ 손등박수 등이 나타난다. ⑤는 강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3] 이번에는 수업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그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흔히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조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떠한지를 알아 보는 것이므로 질문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까?”라는 물음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주’라는 용어가 모호한 표현이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여야 자주 이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시설이 좋고 학력이 우수하다는 점에 동의합니까?”라는 질문도 “시설은 좋지만 학력은 떨어진다.” 또는 “시설은 좋지 않지만 학력은 우수하다.”라는 응답자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질문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교복을 당연히 입어야 한다.’는 설문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출제의도] 수업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모호한 설문, ②는 둘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 ④는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설문, ⑤는 설문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 있는 설문이다. ③은 수업에서 언급한 잘못이 나타나지 않는 질문이다.

**[오답풀이]** ①은 ‘적당’하다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여 좋은 질문이 아니며, ③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답하면 되므로 ‘모호’하지 않다.

[4-5]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요즘 대학 입학 시험에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너도 그거 알고 있지?

**여학생** : 응 당연히 알고 있지. 이제 면접 준비도 잘 해야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남학생** : 그런데 나 큰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어찌지.....

**여학생** : 늘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하니 그렇지. 그러니 제발 얼굴 좀 펴고 다녀.

**남학생** :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돼. 그래서 걱정이야.

**여학생** :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가만 있어 봐..... 응 여기 있네. 미시간 대학교의 제이온스 교수는 첫인상과 호감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첫 번째 그룹에게 몇 명의 인물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나서는 각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로 매기게 했다.

**남학생** : 그럼 5점이 제일 높은 점수겠네.

**여학생** : 응, 그래. 그리고나서 호감도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난 인물의 사진을 두 번째 그룹에게 보여주고 호감도를 매기게 했다.

**남학생** : 그럼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사진만 보여준 거야?

**여학생** : 응, 그런데 무작위로 사진을 보여 주어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사진이 몇 번이나 제시되는지 모르게 했다.

**남학생** :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여학생** :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횟수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이러한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남학생** : 어찌지? 면접은 한 번만 보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면접관을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도 없고 말이야.

**여학생** :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봐. 이 ‘단순 노출 효과’도 한계가 있대. 첫인상이 나쁜 경우는 노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호감도는 더 떨어졌어. 단순히 자주 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일단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을 줄 수 있다는 말이지.

**남학생** : 그럼 첫인상이 중요하단 말이지.

**여학생** : 그렇지.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첫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학생답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늘 웃는 얼굴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해.

**남학생** : 그래. 나도 이제 자주 웃어야겠어. 늘 웃으면 첫인상도 좋아지고 면접 시험도 잘 보고..... 일석이조겠네.

**여학생** :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아?

4. [출제의도] 대화에서 말하기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여학생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제이온스 교수의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호감도와 첫인상의 상관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화 내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화에서는 ②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는 것과, ③ 자주 볼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④ 첫인상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자주 보아도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과 ⑤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늘 웃는 얼굴을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은 대화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쓰기>

6.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④의 그림에서 '각자의 몫'은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의 역할'을 의미하지만, 연상 내용이 '개인의 능력에 맞는 삶'으로 되어 있어 연상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맞는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③은 볼트와 너트 같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의미와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보여 주고 있어 적절한 연상이다.

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만든 것을 구별하는 자체에 이미 편견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만들면 더 잘 만들거나 더 못 만들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그림이므로 적절한 연상이다.

7.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독서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한 글이므로 ③의 '청소년의 독서량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수집'은 독서 동아리를 홍보하려는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에서 '안타깝다'라는 말에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보석 같은 경험'에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①에는 정서가 감정이 드러나 있지만 비유가 없고, ②에는 둘 다 나타나지 않으며, ③과 ④에는 비유적 표현은 있지만 정서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9. [출제의도] 퇴고의 원리에 맞게 글을 다듬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가급적'은 '할 수 있는 대로'의 뜻으로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풀이] ② '검은 색 옷을 입는다'와 '흰색 옷'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흰색 옷을 입는다'와 비교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는 문맥의 흐름상 '그리고'로 수정해야 한다. ④ '공기의 순환은'이 주어이고 '돌다'가 서술어인데, 둘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못하므로 주어를 '공기'로 고쳐야 한다.

10. [출제의도] 개요 수정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경우,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는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II-2-다'를 고려하면 '3-다'에 들어갈 내용은 '방송 오락 프로그램 제작자의 자정 노력 촉구' 정도가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접두사 '한-'의 의미를 예문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의 '한겨울'은 '한창 추위가 심한 겨울', ㄴ의 '한겨정'은 '큰겨정', ㄷ의 '한마을'은 '같은 마을', ㄹ의 '한밤중'은 '깊은 밤'의 뜻을 지닌다.

12.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㉔는 '첫차는 4시 30분에 출발한다.'는 홀문장이 '첫차'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므로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③과 같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홀문장을 안은 문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읽기(현대시)>

□ 출전 : (가) 김소월 「집 생각」 / (나) 김규동, 「노을과 시」 / (다) 이수익 「방울소리」

(가) 김소월의 '집 생각'은 고향을 떠나온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까투리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나) 김규동의 '노을과 시'는 노을을 보며 과거의 농촌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노을'은 화자의 내면을 동요시키는 매개체로, 화자로 하여금 농촌에서 보낸 유년의 기억과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다) 이수익의 '방울소리'는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방울을 매개로 유년 시절의 고향과 자동차 경적소리로 표상되는 현재의 도시 공간을 대비시키고 있다.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는 화자의 과거 체험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불러내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고향을 떠나온 화자가 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 보며 집 생각을 떠올리는 애틋한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는 노을을 통해 지난날의 즐거웠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는 그러한 즐거움이 '없다'고 화자는 인식한다. (다)는 청계천에서 구입한 방울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그러한 방울 소리가 문명화된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들릴 수 있을까 반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나)와 (다)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현실과 대비되는 과거의 회상을 통해 현실에 대한 고뇌를 보여 주고 있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14.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객선'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기보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시의 표현 기법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상을 의인화하고 역동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A]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A]는 과거의 기억만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공간의 대비라고 보기 어렵다.

16. [출제의도] 시를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시적 화자는 청계천에서 구입한 방울을 통해 어린 시절 자신이 소를 몰고 산을 내려오던 때를 회상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소음이 가득한 문명 속에서는 옛날처럼 방울소리가 옥분이네 안방에까지, 사립문에서 있는 누나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가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내는 장면은 시의 내용을 형상화한 장면으로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읽기(역사)>

□ 출전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글은 조선 시대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신문고와 상언, 격쟁의 의미, 절차, 변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1~2문단에서 신문고를 지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ㄱ), 4문단에서 상언과 격쟁의 뜻을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ㄴ).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신문고를 관리하던 곳은 의금부이다.

[오답풀이] ②는 2문단의 '역모에 관한 일'이면 바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그러나 정치의 득실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았음을 확인한 다음에야 부치는 것을 허락했다'에서, ③은 1문단에서, ④는 2, 3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⑤는 1문단에 나타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로 제시된 도표에서 ㉔ 조상의 공덕에 대한 포상요구는 주로 양반과 관련된 사안이다. [A] 부분에서 '상언은 ~ 글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로 양반층이 이용하였다.'에 비추어 판단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격쟁이 적은 이유는 왕권이 강화되었다기보다 평민들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과 ⑤는 위 글 속에서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④ 상언이 격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㉔에서 격쟁이 많은 것은 평민이 부당한 처벌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단어(한자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추궁(追窮)하다 : 끝까지 따지어 밝히다.

③ 전가(轉嫁)하다 : 책임을 남에게 넘겨쓰다.

④ 부과(賦課)하다 : 세금, 일, 책임 따위를 부담하게 하다.

<읽기(기술)>

□ 출전 : 황정원, 「디지털의 선을 없앤다」

이 글은 블루투스 기술의 특징, 블루투스와 USB의 비교, 차세대 블루투스인 고속 블루투스와 저에너지 블루투스의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차세대 블루투스 기술인 고속 블루투스 기술과 저에너지 블루투스 기술의 가치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여 블루투스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블루투스 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제품 설명서를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이다. ⑤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에서 컴퓨터와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은 무선랜이므로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24.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신경이 쓰이다', ②는 '계속되거나 유지되다', ③은 '값이 어느 정도에 이르다', ④는 '판단을 하게 되다', ⑤는 '불이 꺼지다, 전기가 끊어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본문에서 '가다'는 '지속되다'의 의미이다.

<읽기(예술)>

□ 출전 : 김경수,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이 글은 타악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쓴 글이다. 타악기에는 팀파니, 심벌즈, 실로폰, 마림바, 차임벨 등 여러 가지의 악기가 있으며, 특성도 다양하다.

25. [출제의도]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팀파니는 음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다), 실로폰은 소리가 건조하고 울림이 오래 가지 않는다(마). 마림바는 소리가 부드러운 반면 약하기 때문에 주로 독주 악기로 사용된다(마). 심벌즈는 양쪽 가장자리만 서로 닿아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두께를 얇게 만든다고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두께와 연주 시간은 서로 관련이 없다.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비유적 표현, (나)에서는 열거, (다)에서는 대조, (라)에서는 예시의 방식을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마)에서는 실로폰과 마림바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분류가 아닌 대조 방식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실로폰을 세게 두드려 소리가 커지듯 자동차의 바퀴 크기가 크다고 높은 음이 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실로폰을 빨리 두드리면 박자가 빨라지듯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면 박자가 빨라짐에 따라 노래도 빨라진다. ③ 실로폰에서 '미'를 칠 때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1박의 '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4cm 간격으로 흠이 파진 도로를 20m 달려야 한다. ⑤ 실로폰에서 두드리는 속도를 조절해 박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흠의 개수를 조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두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과 ②의 관계는 포함 관계에 해당된다. ①은 ②의 상위어로 ②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①에서 '집'은 '한옥'의 상위어로, 한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답풀이] ②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형태만 서로 다른 동의 관계, ③은 서로 의미가 반대의 의미를 지닌 반의 관계, ④는 전체와 부분관계이다. ⑤는 의미가 닮은 유의 관계이다.

<읽기(현대소설)>

□ 출전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기법의 새로움, 소재의 특이성, 그리고 우리 사회적 전형적인 인물 유형의 설정 등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29.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과 태도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병국은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병식에게 새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오답풀이] ㉡의 경우에는 '아운들 햇볕만 보란 법은 없으니깐.'이라는 구절을 통해 형의 태도에 대해 냉소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 인물과 핵심 소재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병식은 재수생 신분에 족제비를 따라다니며 용돈을 벌고 있다. 그런 병식을 병국은 형으로서 호되게 질책하며 추궁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병국은 병식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풀이] 병식이 형에게 심심풀이로 새를 잡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지만 자신의 행위에 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기 위해서이다.

31. [출제의도] 소설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는 작가의 생각을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드러내는 부분은 없으며, 후반부에 '나'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시점 전환을 통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인물의 다양한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소설의 공간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술집'과 '버스'는 지문에 제시된 소설 부분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술집은 병국과 병식이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버스는 병국이 환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처지를 돌아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읽기(언어)>

□ 출전 : 홍성호, 『진짜 경쟁력은 국어 실력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밥맛-밥맛 없다', 'एं터리-एं터리없다'의 경우와 같이 원래의 말과 명사에 '없다'가 붙은 말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뒤의 부정어 '없다'를 잘라버린 '밥맛', 'एं터리'만으로도 부정의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언어 사용에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예를 들면 '짜가지', '어처구니', '체신머리' 등이 있다.

33. [출제의도] 유사한 언어 현상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④의 '주책'은 '일정한 생각이나 뜻대'를 뜻하는 말이어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여 도무지 요량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려면 '주책없다'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없다'를 떼어버리고 '주책'만으로 '주책없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두 낱말의 의미가 충돌을 일으켜 언어 사용에 혼란을 주므로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 현상의 예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양반'은 '높은 신분'이라 하여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점잖고 예의바른 사람'의 뜻으로 일반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으므로 의미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의 '얼굴'은 옛날에는 '몸 전체'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안면'을 의미하므로 의미의 사용 범위가 좁아진 의미 축소이며, ③의 '왕'은 '한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한 분야의 최고'를 의미로 바뀌었으므로 사용 범위가 넓어진 의미 확대이며, ④에서 '어리다'는 옛날에는 '어리석다'에서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전혀 다른 의미 영역으로 바뀌었으므로 의미 이동이며, ⑤의 '어여뻐'도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의미 영역이 바뀌었으므로 의미 이동에 해당한다.

35. [출제의도] 주장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부정 표현 '없다'가 붙은 말이 '없다'를 떼어버린 표현만으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단어의 의미 자체에 충돌이 생기게 되어 언어 사용을 혼란스럽게 한다. 예를 들면 'एं터리없다'는 '터무니없다'의 뜻이지만, 뒤에 붙은 '없다'를 떼어버리고도 의미를 그대로 지니게 함으로써 'एं터리'의 뜻과 'एं터리없다'의 뜻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एं터리'의 의미에 충돌이 생기게 된다.

[오답풀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에다가 다른 의미까지 지니게 되어 의미적 모순이 생긴다.

<읽기(사회)>

□ 출전 : 김성은, 『인간을 위한 사회계약론』

이 글은 루소 이전의 사상가와 루소의 사상을 비교해 쓴 글이다.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이 수직적인 계약이라면 루소가 주장했던 사회 계약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함께 묶는 수평적인 계약이었던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이다.

3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루소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는 민중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잘못이다.

37. [출제의도] 중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루소 이전의 사상가가 말한 '복종'은 강제적인 의미를 띠고, 한용운의 <복종>에 나타나는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다.

3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루소가 말한 '사회 계약'의 의미를 현실에 적용한 사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도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읽기(과학)>

[39~41] [과학] 오상진, 『알기 쉬운 바이러스』

이 글은 바이러스가 생존 전략으로 자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돌연변이'와 '재편성'을 통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종 바이러스가 '항원의 대변이'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한 글이다.

3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 숙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숙주의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④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다.

[오답풀이] ①은 2문단의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③은 5문단에서 '바이러스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백신의 개발, 세계적 보건 의료 체계 확립'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⑤는 4문단의 '이러한 '대변이'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④의 ④는 재편성에 의한 결과인 반면, '뉴클레오티드의 치환, 삭제 또는 삽입'은 돌연변이와 관련된 설명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풀이] ③의 ㉓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⑤의 ㉓는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중요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2문단에서 '돌연변이'는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에서 더 잘 일어난다고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들고 있다. 3문단에서 '재편성'은 게놈이 8개인 RNA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잘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에서 ㉑은 게놈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④에서 ㉑, ㉒ 모두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⑤는 본문에 '유전자 복제 오류의 교류 과정'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돌연변이'와 관련된 설명이다.

<읽기(시가복합)>

□ 출전 : (가) 정약용, 「호박넋두리」 / (나) 이황, 「도산십이곡」 / (다) 정민, 「미쳐야 미친다」

(가)에서는 벼슬살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 자세하게 잘 그려지고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호박을 훔쳐 온 계집종이 꾸중을 듣는 상황을 설정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학문의 길을 버리고 벼슬살이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이제는 학문 수양에 힘쓰겠다는 내용이고, (다)는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책 읽기에 열정을 잃지 않는 이덕무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 (나)에는 삶에 대한 회개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가난한 상황에서 굶주림을 못이겨 옆집 호박을 훔쳐서 야단맞는 계집종을 통해 궁핍한 사회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옛 성인을 닮고 싶은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으며, ③ (다)에는 이덕무가 처한 가난한 상황의 원인으로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 ④ (가), (다)에는 책 읽기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 있다.

43. [출제의도] 갈래 바꾸어 쓰기를 통해 작품에 드러난 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는 호박을 자신이 먹는다고 하였으므로 ⑤에서 계집종에게 호박을 옆집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4. [출제의도] 유사한 시적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잠깐 동안이지만 벼슬길에 갔다 온 것을 후회하고 있고, [B]의 화자는 독서를 통해 청운(벼슬길)을 꿈꾸고 있으므로 그것을 경계하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45. [출제의도] 발상 및 표현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㉑은 이덕무가 책을 읽는 행위가 반복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병술의 동생이 물똥을 잘 싸서 붙인 이름인 '물개똥'이다.

[오답풀이] ①은 대상이 화자에게 주는 존재 의미를, ②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④는 대상과 관련된 장소를 바탕으로 이름을 붙였다. 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부여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46. [출제의도]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이덕무가 가난 때문에 헌책방에 자신이 아끼던 『맹자』를 팔았지만, 그 책을 다른 사람이 사 갈까 봐 가게를 기웃거릴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이는 이덕무가 책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강했음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읽기(고전소설)>

□ 출전 : 허균, 「장생전」

이 글에는 결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생'이 나중에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기인(奇人)임이 드러나는데, '장생'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이상 세계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4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장생의 기이한 행적에 대한 일화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진년, 정유년의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48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장생의 시체가 부패하여 벌레가 되더니 날개가 돌아 날아가 버렸다.'는 내용으로 볼 때, ㉑의 '벌레'는 주인공의 기이한 죽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49. [출제의도] 적절한 한자성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① 인지상정 :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
- ② 막역지우 : 허물이 아주 친한 벗
- ③ 부창부수 : 남편의 주장에 아내가 따름.
- ④ 양상군자 : 대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가리킴.
- ⑤ 견원지간 : 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매우 나쁜 관계

50. [출제의도] 작품에 제시된 사실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장생은 입을 찡그러서 피리, 거문고, 비파 등의 소리를 내는데, 진짜와 가짜임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서술하여, 장생이 악기 소리를 잘 흉내 낸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⑤에서 '악기 연주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적절하지 않다.